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하여-

2012년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배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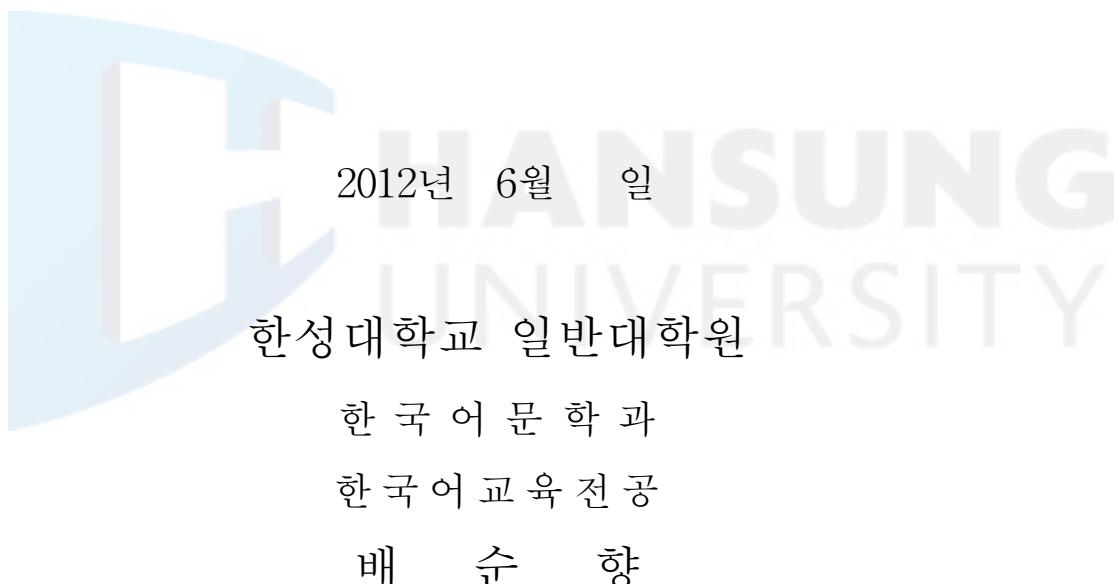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하여-

“The method for integrated educ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using classical text”

- The usage of cultural vocabulary -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하여-

“The method for integrated educ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using classical text”
- The usage of cultural vocabulary-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배순향

배순향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하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배 순 향

본고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 텍스트가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제재로 유용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홍부와 놀부』, 『한석봉과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고전 텍스트와 관련된 현대 문화어휘를 제안하였다. 이것이 기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업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고전 텍스트에서 현대 문화어휘를 발굴함으로써 이것이 수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2장에서 고전 텍스트의 효용성을 3가지로 알아보았다.

① 고전 텍스트 자체의 기본 줄거리 변용이 없이 다양한 난이도로 번역이 가능하다. ②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한국인과의 대화상황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고전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현대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장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재 안의 고전 텍스트 수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급 중 4급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전 텍스트 목록별 현황에서 1위는 『단군신화』가 다음으로는 『홍부와 놀부』가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한국어 주교재에서 잘 활용

되고 있는 예로 『홍부와 놀부』를, 이화여대 주교재에서만 1회 수록되어 빈도수는 떨어지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재로 『한석봉과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홍부와 놀부』와 함께 한국의 변화된 경제관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 문화어휘로 ‘놀부 보쌈’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석봉과 어머니』에서는 현대 한국의 교육관을 볼 수 있는 현대 문화어휘로 ‘기러기 아빠’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파악했다. 이를 통하여 기존 한국어 주교재의 해당 고전텍스트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통해 고전텍스트 교육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앞으로 ‘놀부 보쌈’, ‘기러기 아빠’ 등과 같은 현대 문화어휘가 발굴되어 이것을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언어·문화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고전텍스트가 한국어 교재에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방안으로 더 많이 수록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현대 문화어휘들은 한국의 고전텍스트가 외국인 학습자에게 정형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고전텍스트로 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확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 의의점이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문화어휘, 현대 문화어휘, 고전텍스트, 언어·문화 통합교육, 홍부와 놀부, 놀부 보쌈, 한석봉과 어머니, 기러기 아빠, 한국어교육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4
제 2 장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통합교육의 필요성	11
제 1 절 고전텍스트 교육과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연결성	11
제 2 절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필요성	17
제 3 장 한국어 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현황 및 분석대상	21
제 1 절 개정 전·후 고전텍스트의 수록 현황	21
제 2 절 분석대상 고전텍스트의 선정 범위 및 기준	30
1. 흥부와 놀부	34
2. 한석봉과 어머니	38
제 4 장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의 실제	42
제 1 절 고전텍스트와 연결될 현대 문화어휘	44
1. 흥부와 놀부 - ‘놀부 보쌈’	44
2. 한석봉과 어머니 - ‘기러기 아빠’	45
제 2 절 현대 문화어휘를 통한 수업모형 제시	49
1. ‘놀부 보쌈’을 통한 경제관 이해	49
2. ‘기러기 아빠’를 통한 교육관 이해	50
제 3 절 현대 문화어휘 수업모형을 통한 고전텍스트 교육의 의의	53
제 5 장 결 론	54

【참고문헌】 56

【부 록】 63

ABSTRACT 66



【 표 목 차 】

[표 3-1]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별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	22
[표 3-2] 고전텍스트별 한국어 주교재 수록 빈도	23
[표 3-3]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	27
[표 3-4] 개정 후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	29
[표 3-5] 한국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	32
[표 4-1] 급별 문화 교육의 목표	4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 외에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어린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단계를 지나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을 배운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익혀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취업 또는 유학을 위해서는 물론, 한류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온 경우라도 한국인과 대화상황에서 한국어의 문화적 배경들을 알아야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갈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인이 단기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언어적인 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접하게 된다. 장기적인 해외체류를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곳의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언어 학습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어와 문화의 학습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목표언어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어(Target Language)사회의 문화적 배경까지의 숙지가 요구된다. 즉,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각각 잘못 해석될 때 많은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란 문화적 이해가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¹⁾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 항목의 언급이 없이는 원활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문화의 학습에서 문화만을 별도로 떼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과 동시에 문화적 통찰

1) Edward T. Hall,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 Doubleday, 1969). p. 5

과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²⁾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현대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대상자는 1~6급까지 있으나 4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공인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박영순 외(2008)³⁾을 살펴보면 3급까지는 기본적인 어휘의 습득에 평가기준과 목표를 두고 있으나 4급부터는 일반적인 소재를 표현하는 추상적인 어휘와 직장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휘, 신문이나 뉴스를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된 핵심 개념어의 습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의 활용도는 언어 중심의 문화 통합 교육으로써 언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또 문화교육 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문화는 과거의 문화로만, 현대의 문화는 현대의 문화로만 따로 논의되고 있어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여 접목시킨 문화교육 교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학습이 어휘나 문법, 한국에 대한 지식의 확장만이 아니라 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을 제시할 것이며, 그 내용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와 결부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전텍스트를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해당 고전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와 연결시킬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를 살펴볼 것이다.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 즉 ‘문화어휘’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과거 전통사회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맥락에서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어휘를 ‘현

2) 박희은(2007),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학습 방안 연구 – 한, 미간 문화적 간섭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학 석사논문

3) 박영순(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대 문화어휘’라 명명하고, 이를 담고 있는 고전텍스트를 통해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가 집단마다 공동의 이해 및 해석의 장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개인 간의 만남이며 동시에 문화 간의 만남이 되는 것이⁴⁾라고 한다. 이처럼,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것이 한국어 교육 이면의 성취욕구일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고전텍스트가 과거의 산물로써만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있는 의미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이라는 것을 선정된 고전텍스트를 통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현대문화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이므로 이것을 기준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거나 내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학적 자산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된 것은 무엇이며 변화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의 고전텍스트를 통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법에 대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4) 권오현(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 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제1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47-274

제 2 절 선행연구

본고의 연구에서는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이므로 먼저 기존의 문화에 중점을 둔 논문들의 시대별 양적 흐름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문화교육을 제시한 연구를 통해 어떤 고전텍스트를 사용해 전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문화어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고가 제시하려고 하는 ‘현대 문화어휘’의 정의와 개념도 밝혀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언어와 문법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교수법이 대세인 한국어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밝힌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영순(1989, 2001), 민현식(1996, 2004), 김정숙(1997), 조항록(1998, 2002), 이해영(2000), 라혜민·우인혜(2001), 성기철(2001), 조항록·강승혜(2001) 등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강현화(2010)⁵⁾는 문화교수 선행연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학위논문 143편과 학술지 227편으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국어와 영어교육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교수 내용 연구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10여년 사이 연구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언어교육 연구 논문과 비교할 경우) 아직 어떻게 문화교육을 한국어 교육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그 내용의 연구에서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논문들을 통해 문화교육에 대한 시각과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수현(2004)⁶⁾은 경희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의 문화교

5) 강현화(2010),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 방향성에 대한 제언 :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국민대학교 어문학연수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1-35

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어 교재 구성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고,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체계화까지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 구성의 유의 사항에서 현대문화의 소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언어와 문화의 교육에서 이원 체계가 아니라 언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본고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또 김수현(2006)⁷⁾은 앞선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분석하여 나타낸 후 문화 항목의 급별 체계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선미(2004)⁸⁾는 TV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 문화 학습 방안을 이미혜(2005)⁹⁾는 대중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중심의 언어통합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위해 주요 대학 기관별 교육 현황과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문화 교육 속에 대중문화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강현화(2007)¹⁰⁾는 행동문화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즉 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 등)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가치문화’로 명명하고, 웹 교재로써 실현 가능성은 보여 주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화교육의 방법으로 현대문화, 대중문화, 웹 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면서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교육 안에서 고전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힌 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장경은(2001)¹¹⁾은 단계별 문화교육의 목표와 실현방안을 말하며 중급

-
- 6) 김수현(2004),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현황과 방안, 『이화여문논집』 제22집,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pp. 43-59
 - 7) 김수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 8) 김선미(2004), TV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 문화 학습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9) 이미혜(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1호(2005.05.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85-206
 - 10) 강현화(2007),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방안, 『언어와 문화』 제3권 제2호(2007.0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 85-115
 - 11)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단계에서 전래 동화 구연하기를 제시하고 그 예로 『홍부놀부』를 사용하였다.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양민정(2003)¹²⁾은 생활언어 소통에서 문화 간 소통으로 그 수준을 고양시키고 고급언어를 익히며 한국인의 보편성, 특수성, 민족성 등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친한파적 외국인을 양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교육매체는 문학이며, 그 중에서도 고전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춘향전』을 통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교육 방법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과의 비교를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양민정(2006)¹³⁾은 문화교육 방안으로 한국적인 특수성을 지닌 설화로 『단군신화』를,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민담으로 『선녀와 나무꾼』을 분석¹⁴⁾하여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보여 주었다. 양민정(2008)¹⁵⁾은 어학과 문학, 문화교육까지 삼위일체의 교육목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매개로는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창세·건국신화를 문화와 대비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홍혜준(2004)¹⁶⁾은 고전 작품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언어교육 자료인 동시에 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자료라고 하였다. 그 예로 『홍부와 놀부』를 통해 문화·언어·개인 성장 모형 등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인자(2004)¹⁷⁾는 한국어 교육과 고전 문학 교육이 만날 수

12) 양민정(200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통권25호 (2003 여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269-292

13) 양민정(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35호(2005 겨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01-126

14) 본고가 다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방문교사로 재직할 시 한국인 남편의 중국지사 근무시 연애결혼으로 한국에 시집 온 중국인이주여성에게 <선녀와 나무꾼>의 분석내용을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었다. 이 여성은 4살난 딸이 있었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1년 중 10개월 가량을 중국지사에 근무하고 2개월 한국에서 근무하다 본고를 만난 해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경우였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에서의 아들의 위치, 특히 남편과 같은 장남의 역할에 대해 부담은 가지지 않았지만 깊이 이해하는 계기는 형성되었다.

15) 양민정(2008),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 한·중·일의 창세·건국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43호(2007 겨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47-169

16) 홍혜준(2004),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529-555

17) 백인자(2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여문논집』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61-83

있는 길은 초급에서부터 고전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 수록된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와 『홍부와 놀부』, 『금도끼 은도끼』를 활용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실제 한국어 교재에서 중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고전텍스트를 초급부터 다뤄야 하는 이유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점이다. 문부자(2004)¹⁸⁾는 설화를 활용한 통합적 수업 방안으로 중급 단계에서의 읽기를 연구하였다. 그 실제 수업 모형으로 『쥐의 사위 구하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장자못 전설』을 제시하였다. 서희정(2005)¹⁹⁾은 도깨비 설화의 교육적 가치와 함께 『도깨비방망이』와 『도깨비감투』에 나타난 주제, 주물, 구조, 인간의 악행에 대한 응징 양상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화선(2005)²⁰⁾은 『나무꾼과 선녀』를 통하여 초·중·고급의 학습목표와 언어·문화요소를 제시하고 수업 안을 보여 주었다. 이숙진(2007)²¹⁾은 기존 교재의 문학 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초급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중급은 『홍부전』 고급은 『춘향전』을 통해 수업방안을 보여 주었다. 최권진(2006)²²⁾은 한국 전래동화가 중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에게 읽기/말하기/쓰기/듣기 능력과 어휘, 문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교육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 자료임을 말하고, 그 예로 『혹부리 할아버지』를 보여 주었다. 강혜민(2006)²³⁾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고전텍스트로 『박씨전』을 통해 한국의 문화교육 내용 구성에 대해 보여주었다. 윤미정(2008)²⁴⁾은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언어 기능 교육과 함께 범문화성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보았다. 『나무꾼과 선녀』를 일본·중국·몽골·이

18) 문부자(2004), 설화를 활용한 통합적 수업 방안 - 중급 단계를 대상으로 -,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 서희정(2005), 도깨비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85-206

20) 이화선(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1) 이숙진(2007),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 학습자 등급에 따른 교재구성을 중심으로 - 강남대 국어국문과 석사논문

22) 최권진(2006),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권 2호(2006.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37-266

23) 강혜민(2006),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4)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탈리아의 유사 전래동화와 비교하면서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정선(2008)²⁵⁾은 언어 교육에서 문학의 당위성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으로 고급을 대상으로 한 『토끼전』을 제시하였다. 이혜진(2011)²⁶⁾은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으로 『홍길동전』을 예로 들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고전텍스트를 언어·문화적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홍부와 놀부』처럼 여러 연구에 등장하는 고전텍스트도 있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토끼전』, 『홍길동전』 같은 고전텍스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연구는 문학 외에도 역사, 사회, 종교, 민속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다. 문화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읽기 자료나 수업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의 특성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⁷⁾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전텍스트가 과거 전통문화를 보여주면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고전텍스트를 각 단계별로 제시하여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비교문화적 관점의 수업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충분히 학습·연구한 이후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결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비교문화적 관점의 고전텍스트 수업효과가 교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서 소개할 ‘문화어휘’ 관련 연구들과 본고가 제시하고자 하는 ‘현대 문화어휘’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를 ‘어휘’²⁸⁾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 어

25)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박사논문

26) 이혜진(2011),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7) 강현화(2008), 한국어 교육학 내용학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어 교육』 1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1

28) 전미순(2011),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박

휘가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기에 ‘문화어휘’라고 명하고 학자마다 내린 정의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미순(2011)의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연구²⁹⁾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어휘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진 언어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연구로는 강현화(2002)가 있으며 임칠성(2002)의 경우 ‘문화어’라고 명하고 있으며, 김광해(2003)는 ‘문화소통용 어휘’라 하고 일종의 문화 전문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문화어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규(2005), 정예희(2007), 김영진(2008) 등이 있다.

셋째, 문화어휘는 학습자 언어권에서 인식하는 어휘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박영준(2000)이 있으며, 유문희(2004)의 경우 일본어 교육에서 일본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어휘를 가리키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김은희(2009)는 민족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미순(2011)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어휘의 개념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직·간접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³⁰⁾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미순(2011)의 연구에 의거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므로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을 담은 키워드의 명칭을 ‘현대 문화어휘’로 칭하고자 한다. 이 ‘현대 문화어휘’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교재의 고전텍스트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 4장에서 논의하려 한다.

사논문

29) 상계논문

30) Anna Wierzbicka(2009:38)는 어휘와 문화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키워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키워드는 해당문화에서 특별히 중요하고도 시사적(示唆的)인 언어라 보았으며,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연어, 관용어, 문법구조, 속담 등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태도나 가치관에 얹힌 ‘구(球)’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미순(2011:13)재인용

이상과 같이 다양한 고전텍스트를 통한 문화교육 방안에 대한 한국어 교육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고전텍스트들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전텍스트가 한국어 교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본고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교재를 통해, 즉 수업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김수현(2004)³¹⁾이 제시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현황을 통해서 내 놓은 방안으로 현대문화와 전통 문화를 조화롭게 제시한다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그 실체적인 방안으로 본고는 고전텍스트의 필요성을 제 2장에서 알아 볼 것이다. 또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연결성을 고전텍스트가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고자 한다.



31) 김수현(2004), 전개논문

제 2 장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통합교육의 필요성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고전, 고전소설, 설화, 전래동화, 과거 전통사회의 일화, 신화, 전설, 민담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현대 한국인들에게 제시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들 모두를 ‘고전텍스트’로 총칭한다. 또한 현대에 제작되었으나 과거 전통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텍스트도 넓은 범위 안에서 (본고가 다루려는 전통사회와 현대문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텍스트라면 전통적인 ‘고전텍스트’와 다른 장르이지만) 내용면에서 같은 장르의 ‘고전 텍스트’로 다루고자 한다. 단 전통사회의 시의 형태를 띤 한시, 시조나 시가와 같은 시형식은 소설의 형식과는 이야기 구조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 1 절 고전텍스트 교육과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연결성

우리가 흔히 ‘의사소통’이라고 풀이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언어는 문화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는 “본질적으로 동의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³²⁾

예를 들어 한국인이 “나 미역국 먹었어”라는 말을 들을 경우 ‘생일’의 의미 외에 ‘낙방’이라는 의미를 대화 상황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한국인은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어요.”라고 배웠지만 낙방의 의미까지 배우지 못한 경우, ‘낙방’의 의미로 사용한 한국인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일 축하의 말을 건네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화와 언어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32) 김성경 편역(2005). 에드워드 스튜어트,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역자의 말(서문)을 재인용 함.

또 Otto Jespersen에 의하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사상과 제도, 문학과 문화에 접근하는 것, 요컨대 가장 넓은 뜻으로는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³³⁾ 즉,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습득과 언어적 의사소통 그 이상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H.H. Stern은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에서 언어 교수와 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³⁴⁾ 언어 자체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 교수에 있어서 언어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의사소통과 접촉을 위해 교수되고 학습되기 때문에 언어와 사회를 관련짓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언어중심의 의사소통 교수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교재 안에 각 과별로 문화란을 둔다든지, 현장학습이나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대체하려는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³⁵⁾ 그러나 모든 교육현장의 여건과 학습자의 요구는 제각각인 관계로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하는 한국문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김선미(2004)³⁶⁾의 <먼저 배우고 싶은 문화 항목>의 조사결과를 고전텍스트와 연결지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배우고 싶은 문화 항목	순위
한국인의 사고방식	1
한국사회의 예절	2
한국의 역사	3
한국인의 의식주	4

33) 김익환(2006), 문화적 요소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제32호(2006. 5), 한국영어교육연구회, pp.7-24 재인용

34)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역,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夏雨, p. 305.

35)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을 예로 든다면, 수업시간에 ‘오세암’ 같은 영화를 본다거나 매 학기별(1년 4학기)로 외부에서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수업(방송국 견학, 남산 한옥마을, 세계문화교류재단 등을 통한 체험학습) 외에 별도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방과 후 현장탐방 시간을 가지고 있다.

36) 김선미(2004), 전개논문

현대한국인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	5
한국인의 취미와 여가생활	6
한국인의 경제활동	7
한국의 공공시설과 제도	8
한국의 교통	9

1위로 나타난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경우 유·불·선에 현대의 기독교까지 더해진 것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종교와 사상적인 부분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심청전』에는 공양미 삼백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과 함께 이 때문에 고난을 겪는 유교의 효를 대표하는 심청이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스토리는 『심청전』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 이면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심청전』과 같은 고전텍스트가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고전텍스트와는 다른 예로써 현대에 제작된 고전콘텐츠를 통해 고전텍스트 교육의 효용성을 말하고자 한다. 초기 한류 열풍에 일조했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드라마 『대장금』이 있다.

과거 한국의 전통사회의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약자인 장금이라는 여성을 통해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남미, 유럽을 넘어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까지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문화권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슬람 문화권은 여성에 대한 제재(운전 금지, 부르카 착용 등)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화된 지구촌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교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타난 생소한 한국의 전통 고전텍스트도 어떻게 다듬어서 한국어 교재에 내어놓느냐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대장금』과 같은 문화적 효과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고전텍스트에는 위의 <먼저 배우고 싶은 문화항목>에서 1위를 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예절, 역사, 의식주,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남

아 있는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먼저 배우고 싶은 문화 항목>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텍스트를 제 3장에서 선정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라는 학습의 장에서 고전텍스트는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고전텍스트 자체의 기본 줄거리 변용이 없이 다양한 난이도로 번역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인과의 대화상황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고전텍스트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현대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텍스트의 효용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시한 ‘고전텍스트의 기본 줄거리 변용이 없이 다양한 난이도로 번역이 가능하다.’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현대문학의 경우 작가의 허락이 없이 원문을 변용하기가 쉽지 않다. 작가의 동의를 얻어 원문을 학습 단계별로 고쳐서 수록한다 해도 원래의 뜻과 다른 뜻으로 전달되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이본들과 구전들이 전해오는 고전텍스트야말로 기본 줄거리의 변용이 없이 급별 난이도에 맞춘 언어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속에는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것이다.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고 피드백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학습자들에게(특히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 기존 수업시간에 고전텍스트를 가르침으로서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화적으로 충족된 고전텍스트 수업을 받은 학습자 스스로가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고전

텍스트를 찾아 볼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인과의 대화상황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고전텍스트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현대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다.’를 보겠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일상 대화나 방송프로그램 속에 차용된 콘텐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고전텍스트를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방송매체에 활용도가 높은 고전텍스트를 학습한다면 이를 통해 더 깊은 문화 간의 소통과 함께 고전텍스트를 통한 한국어 학습 효과가 생활 속에 적용되는 예가 되는 것이다. 고전텍스트가 방송프로그램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들어 보겠다. 다음은 대표적 국민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KBS의 ‘1박 2일’에서 나온 장면이다.

2011년 10월 2일 전국 5일장 투어를 담은 방송분이다. 다섯 멤버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장터 구경을 하며 장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그맨 이수근이 경남 창녕장에서 찹쌀 도넛 반죽을 길게 만들어서 일정하게 써는 아저씨를 보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³⁷⁾ 방송에서는 이 아저씨의 손놀림을 보여주면서 자막으로 “한석봉 어머니도 울고 갈 솜씨”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클로즈업된 칼질 장면과 해당 자막의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석봉과 관련된 일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칼로 떡을 써는 장면과 자막의 연관성을 알 수 없으니 그 상황과 뜻을 이해하기는 더욱 힘든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구사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면서 문학을 종속적 도구로만 삼아온 경향이 있다. 종래의 교육 방식을 생활언어 소통에서 문화 간 소통으로 그 수준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어학과 균형을 이루는 교육 매체로써 문학 중에서도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³⁸⁾는

37) 본인이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에서 『한석봉과 어머니』에 대한 수업을 해 본 결과 KT 올레 광고에 삽입된 패러디 장면을 수업 전에는 처음 보고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해당 고전텍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한 후 다시 감상하니 한국인과 같은 지점에서 웃는 반응을 보였음. 또한 6급 수업이라 다국적 고급학습자와 특히 일본인 이주여성이 다수였는데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기가 두렵고 무섭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며 교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저절로 한국의 교육에 대한 말하기와 토론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38) 양민정(2003), 전계서

점에 있어 본고는 제 2절에서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통합교육의 필요성

외국어 교육 교수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이어 청각구두식 교수법, 자연주의 교수법, 침묵 교수법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수법이 대두되었다.

영어교육에 비해 역사가 짧은 한국어 교육의 경우를 황인교(2003:296)³⁹⁾는 현재 주요 대학(경희대, 고려대(구교재),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등)의 한국어교육 교재에서 의사소통교수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문화교육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의사소통 교수법이 초기 한국어 교육에 적용될 때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이를 해소하고 언어에 비해 부족한 문화교육을 위해 한국어 주교재의 개정판⁴⁰⁾에서는 문화적 의사소통까지 교수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리글자인 한글의 장점과 의사소통교수법의 만남으로 인해 한국에서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은 학습하는 만큼 좋아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경우 1년 6개월(1,200시간) 정도면 6급까지 마칠 수 있다. 4급 이상을 대학 수학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학교가 많은 관계로 6급까지 마치지 않아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한국인이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배운 영어 학습 시간과 대조하여 언어적 유창성을 비교할 경우 (한국어 학습을 한국에서 하는 이점이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효과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놀라운 학습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외국인 학습자와 일상적인 대화상황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싶어서 한국인에게 말하듯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발화가 한국어 교재에서 배우지 않은 표현과 문화적인 내용이 혼재된 것을 듣게 된다. 이때 외국인 학습자는 한

39)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28집(2003. 1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 287-329

40) 고려대학교의 한국어교재 개정판에서는 급별 각 과마다 별도의 문화란을 두어 한국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국인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한국인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적 유창성이 실제 내용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재와 학습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Alfred G. Smith의 이론에 의거해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어 교육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가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배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할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한데 언어를 익히느라 문화를 배울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제안한다. 그리고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제대로써 본고는 고전텍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고전텍스트를 한국인의 국어교육과 비교하고, 한국어 교육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 교육에서 고전텍스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 이양호(2008)에 따르면 현재 고전문학 교육이 암기 교육⁴¹⁾으로 흐르고 있어 학생들에게 고전텍스트 교육의 장점은 부각되지 못한 채 현대문화와 맞지 않는 과거의 인습적인 ‘가부장적’, ‘유교문화’ 등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텍스트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요소가 필요하며 고전텍스트 교육의 완성을 통해 더 큰 의미의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국어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은성(2010)⁴²⁾은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한 암기식의 활동보다 문학 자체를 실제적으로 감상,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문학에서 표현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1) 이양호(2008), 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 문학 교육 방향 고찰 - 7~10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논문

42) 이은성(2010),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위의 내용과 함께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텍스트가 담고 있는 언어적인 부분이 부각되어 교육되면서 이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고전텍스트가 현대와는 단절된 과거의 속성으로만 치부될 수 있기에 현대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교수방안을 짜야 할 것이다.

둘째, 타문화권에서 자라온 학습자에게 한국의 고전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교사의 역량⁴³⁾에 맡기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 실린 고전텍스트를 수업하는데 있어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의 만족도가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출간될 한국어 교재에서는 고전텍스트가 현대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수업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고전텍스트에 관한 현대 문화와 접목된 활동들을 첨부해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화 요구와 교수자의 문화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를 외울 때 무작정 암기하는 것 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억의 저장은 오류가 적고 기억시간도 길다고 한다. 고전텍스트는 단어, 어휘, 문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므로 언어와 함께 과거의 문화까지 담고 있다. 고전텍스트와 관련된 현대문화를 수업활동에 적용한다면 학업성취와 흥미유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정된 수업시간과 수업 환경에서 한국어 교사가 한국의 역사까지 가르치기는 힘들다. 그러나 고전텍스트를 통해 수업의 내용과 질을 역사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고전텍스트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텍스트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고전텍스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문화어휘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개발된 문화어휘를 통

43) 강현화(2010), 문화교수의 쟁점을 통해서 본 문화교수의 방향성 모색, 『한국언어문화학』에 따르면 문화교수의 내용이 교수자의 문화교수 능력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언어교육기관의 실정상 문화를 전달하는 교사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언어를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문화교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설사 문화와 연관된 지식을 가진 교사가 있더라도 역시 문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의 요구에 근거한 문화교수라기보다는 교수자의 지식을 활용한 교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면 과거와 현재까지의 역사와 함께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텍스트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언어를 통해 현실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문학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문학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와 문화 습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⁴⁴⁾는 논지를 통해 언어·문화의 통합교육에서 고전텍스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다음의 제 3장에서는 고전텍스트가 한국어 교재 속에 나타나는 분포와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고전텍스트가 급별로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수록된 고전텍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목록들을 통하여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선정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44) 홍혜준(2004), 전계논문, p. 529.

제 3 장 한국어 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현황 및 분석대상

한국인들은 고전텍스트를 유아기 때 동화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다. 이후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한 고전이 한국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⁴⁵⁾ 고전텍스트로 남게 된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주교재가 한국어와 관련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면서 핵심적인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현황을 주교재를 중심으로 어떤 작품이 몇 회 나타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한국인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목록을 조사하여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과 비교할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고전텍스트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개정 전·후 고전텍스트 수록현황

본 장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는 주교재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한국어 교육기관에 따라서 주교재와 함께 부교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특별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교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수업 보충 자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자료와 상황을 일반화시켜 조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자체 개발된 한국어 교재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45) 조희정(2007), 고전 정전의 재검토 - 해방 이후 초,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25권, 한국문학교육학회에 실렸으며 후에 책으로 출간됨. 한국문학교육학회(2010). 정전(正典), 역락, p. 186.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⁴⁶⁾

한국어 교육기관 중 1~6급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교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화여대, 신라대,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⁴⁷⁾가 선정되었다. 다음의 <표3-1>은 선정된 기관의 주교재에서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표 3-1>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별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
이화여대	1/15	0/15	0/15	10/10	0/10	-	11/65	16.9
신라대	0/35	0/9	1/9	8/9	3/9	1/9	13/80	16.3
경희대	0/20	0/25	0/8	3/8	2/8	2/8	7/77	9.1
서강대	0/14	0/18	1/16	3/16	3/16	0/0	7/80	8.8
연세대	0/10	0/10	0/10	0/10	0/10	4/10	4/60	6.7
성균관대	0/20	0/20	1/20	3/20	2/15	1/15	7/110	6.4
건국대	0/30	0/30	1/32	1/32	1/26	2/24	5/174	2.9
고려대	0/20	1/20	1/20	1/20	0/20	0/20	3/120	2.5
서울대	0/30	0/33	0/34	3/35	-	-	3/132	2.3
총계	1/194	1/180	5/164	32/160	11/114	10/86	60/898	6.7
백분율	0.5	0.6	3.0	20.0	9.6	11.6	6.7	

9개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 중에서 이화여대 주교재가 16.9%로 가장 많은 고전텍스트를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수 중에서는 4급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급이 9.6%를 차지하였고, 6급이 11.6%를 나타내었다. 5~6급보다 4급에서 두 배 가까이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단어와 문장을 익힌 뒤 짧은 이야기 형식을 익히

46) 문화 교육의 대두로 인해 주교재 속에 문화란도 조금씩 늘어나고 부교재를 통해서 문화 교육을 겸한 고전텍스트 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환경과 외국인 학습자의 여건 상 대학 기관처럼 한 학기당 200시간씩 수업할 수 없는 기타 기관들에서는 주교재 수업도 마치기 힘든 곳이 많다.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 교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재인 주교재를 통해 고전텍스트 수록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7) 분석대상은 주교재로 본문 외에 활동에 실린 고전텍스트도 통계에 포함되었다.

는데 고전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전텍스트 수록빈도에서 1위를 차지한 이화여대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11편 가운데 10편이 4급에 수록된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의 <표3-2>는 '<표3-1>의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별 주교재의 고전 텍스트 수록 빈도'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각 급수별, 고전텍스트 목록별, 수록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3-2> 고전텍스트별 한국어 주교재 수록 빈도

제 목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계	학교명
단군신화			1				1	고려대
단군신화(듣기)					1		1	건국대
단군신화				1		1	2	경희대
단군신화				1			1	서울대
단군신화				1			1	서강대
단군신화				1			1	성균관대
소 계	0	0	1	4	1	1	7	12.7%
홍부와 놀부				1			1	서울대
홍부와 놀부					1		1	서강대
홍부전				1			1	신라대
현대극 놀부전				1			1	신라대
홍부전 속의 부자 경제학					1		1	신라대
놀부 심보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0	4	2	0	6	10.9%
춘향전						1	1	건국대
춘향전					1		1	경희대
춘향전					1		1	성균관대
춘향전			1				1	신라대
열녀 춘향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1	1	2	1	5	9.1%
효녀 심청				1			1	경희대
효녀 심청				1			1	건국대
심청전				1			1	서강대

효녀 심청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0	4	0	0	4	7.3%
선녀와 나무꾼				1			1	경희대
선녀와 나무꾼				1			1	서강대
선녀와 나무꾼				1			1	신라대
소 계	0	0	0	2	1	0	3	5.5%
금도끼와 은도끼				1			1	서강대
금도끼와 은도끼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1	1	0	0	2	3.6%
토끼전				1			1	신라대
토끼전				1			1	신라대
소 계	0	0	0	1	1	0	2	3.6%
해님 달님				1			1	서강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			1	신라대
소 계	0	0	0	1	1	0	2	3.6%
바보 아닌 온달, 바보가 된 내력				1			1	신라대
온달 콤플렉스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0	1	1	0	2	3.6%
맹진사댁 경사(오영진 작-희곡)						1	1	건국대
맹진사댁 경사(오영진 작-희곡)						1	1	신라대
소 계	0	0	0	0	0	2	2	3.6%
혹부리 영감님				1			1	성균관대
도깨비 방망이				1			1	이화여대
소 계	0	0	1	1	0	0	2	3.6%
소가 된 게으름뱅이				1			1	건국대
검정소와 누령소				1			1	고려대
젊어지는 샘물				1			1	경희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신화				1			1	서강대
청개구리 이야기				1			1	서강대
임꺽정				1			1	서울대
말 한 마디로 색시를 얻은 총각				1			1	성균관대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입혀 주면 되지요				1			1	성균관대
바가지로 벽을 뚫은 아이				1			1	성균관대
여우와 세 개의 주머니						1	1	성균관대
일명 푸줏간 박상길				1			1	신라대
견우와 직녀				1			1	신라대
부자가 된 착한 머슴				1			1	신라대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1					1	이화여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			1	이화여대
효성을 다한 호랑이				1		1	이화여대
한석봉과 어머니				1		1	이화여대
팥쥐엄마				1		1	이화여대
소 계	1	0	1	13	2	1	18
총 계	1	0	5	33	11	5	55
							100.0%

각각의 고전텍스트별 소계를 보면 『단군신화』가 7회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홍부전』으로 6회 출현하였다. 『춘향전』이 5회로 3위, 『효녀 심청』이 4회로 4위, 『선녀와 나무꾼』이 3회로 5위를 하였다. 고전텍스트 전체 총계에서 55회 수록 횟수 중에 1회씩만 수록된 고전텍스트는 18작품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에서 32.7%를 차지하여 고전텍스트 목록 중 삼분의 일 가량이 1회씩만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5위 안에 든 고전텍스트 외에는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고전텍스트라고 하더라도 한국어교재에 수록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위에서 조사한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목록을 조사한 후 비교하여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을 선정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자 한다.

‘<표3-2> 고전텍스트별 교재 수록 빈도’에 나타난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볼 자료로 ‘<표3-3>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3-3>의 결과를 보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 30개의 고전텍스트가 총 185회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어 교재에서 2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을 보여준 『홍부와 놀부』가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도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홍부와 놀부』의 출현 빈도와 함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내용적인 면을 참고하여 제 4장에서 본고가 제시하고 하는 현대 문화어휘의 제재로 『홍부와 놀부』를 선정한 이유가 될 것이다.

초등 국어 교과서에 『홍부와 놀부』와 함께 공동 1위를 나타낸 『이순

신』, 3위를 차지한 『김정호』와 9회 이상 수록되어 4위를 차지한 『토끼의 재판』등은 출현 빈도가 상위권인 고전텍스트이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이화여대 4급 교재 속에서만 1회 나타나는 『한석봉 이야기』가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는 7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한국어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목록이 한국인이 초등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고전텍스트 목록과는 상호 관계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는 세대를 뛰어 넘어 학습자들에게 ‘우리의 대표 고전 작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⁴⁸⁾ ‘<표3-3>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에 있는 고전텍스트가 아니면서 ‘<표3-2> 고전텍스트별 한국어 주교재 수록 빈도’에서만 나타나는 고전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예를 들어 『여우와 세 개의 주머니』, 『푸줏간 박상길』과 같은 작품은 한국어 교육에 유용한 고전텍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고전텍스트가 아닐지라도 한국어 교육 제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학습자가 수업 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어 읽지 않는 이상 한국어 교재를 통해 접하는 고전텍스트가 전부일 수도 있는 점에서 고전텍스트 목록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학습자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될 언어와 문화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점진적으로 학습해 가고 있다. 학습자가 한국어교재를 통해 접하는 고전텍스트가 전부일 수도 있다. 또는 배운 고전텍스트를 통해 더 많은 고전텍스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전텍스트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고전텍스트를 각급수의 언어적 능력에 맞추어 각색하여서 초급에서부터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후에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일반 한국인이 알고 있는 고빈도 고전텍스트에서 저빈도 고전텍스트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48) 조희정(2007), 전계 논문

다음은 조희정(2007)이 조사한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을 본고에 맞게 재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3-3>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

번호	작 품 명	빈도수	순위
1	홍부전	15	1
2	이순신(난중일기 포함)	12+(3)=10	1
3	심청전	12	2
4	김정호	10	3
5	세종대왕(훈민정음 서문 포함)	7+(3)=10	3
6	토끼의 재판	9	4
7	별주부전	8	5
8	의좋은 형제	8	5
9	삼년고개	8	5
10	한석봉 이야기	7	6
11	금도끼 은도끼	6	7
12	은혜 깊은 까치	6	7
13	배나무 일화, 검소한 밥상-황희	3+3=6	7
14	윤희 거위 일화	5	8
15	신사임당	5	8
16	임금님께 바친 무	5	8
17	선녀와 나무꾼	5	8
18	젊어지는 샘물	5	8
19	혹부리 영감	5	8
2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5	8
21	온달과 평강공주	4	9
22	강감찬	4	9
23	최문선	4	9
24	소가 된 게으름쟁이	4	9
25	짚신 장수와 나막신 장수 아들	4	9
26	팔려가는 당나귀	4	9
27	청개구리 이야기	3	10
28	이황 이야기	3	10
29	소년과 지혜로운 어머니	3	10
30	저승에 있는 곳간	2	11
계		185회	

다음은 <표3-1>주요 한국어 교육기관별 주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에서 제시된 9개 대학교(이화여대, 신라대,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들의 한국어 주교재 중에서 1~6급까지 개정본을 출판한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주교재 안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고전텍스트의 수록 분포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2개의 대학교만이지만 일부 살펴보려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자체 출간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교육기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정판을 6급까지 완성하여 사용하는 대학 교육기관으로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주교재 뿐인 관계로 일단 두 대학의 주교재를 분석하였다.

고려대(2008) 개정판의 경우 별도의 문화란을 두어 문화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고전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개의 부교재를 두고 있는 연세대의 경우 개정 전의 6.7% 보다 약간 웃도는 10.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 단원별로 언어와 문화를 적절히 배치하여 언어·문화의 통합교육이 가장 잘 구현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전텍스트의 분포에 대해서는 4급의 주교재 외에는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낮았다.

개정판을 서서히 내고 있는 교재들도 있지만 아직 고급과정까지 출간되지 않은 대학들이 다수인 관계로 고려대와 연세대 2개의 주교재만으로 경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교육 인원으로 볼 때 상위권에 속하는 두 대학의 주교재에서 고전텍스트가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제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고려대의 경우 문화설명을 곁들인 문화란은 있으나 고전텍스트는 0%로 나타나고 있음) 점점 주교재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아래의 '<표3-4>개정 후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표3-4> 개정 후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⁴⁹⁾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
고려대 (2008~)	0/15	0/15	0/15	0/15	0/10	0/10	0/80	0%
연세대 (2007~)	0/10	1/10	0/10	4/10	0/10	2/10	6/60	10.0%

다음은 고전텍스트가 실제 한국어 교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 고전텍스트의 선정 범위 및 기준을 제3장 제 2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9) 연세대 6급의 경우 1텍스트에 계백장군과 이순신을 다루고 있지만, 두 인물의 내용이 나오는 관계로 2가지 고전텍스트로 분류하여 통계를 냄.

제 2 절 분석대상 고전텍스트의 선정 범위 및 기준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텍스트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국어교육에서 고전 텍스트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고전텍스트에 관한 국어교육에서의 논의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초판을 시작으로 2007년 개정판을 낸 『국어교육학과 사고』⁵⁰⁾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국어 교육에서 고전(古傳)은 어디까지나 옛것(古)이라는 의미에서만 고전일 뿐, 전범(典範)으로서의 의미는 별반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학교육 가운데서도 특히 고전문학교육은 학생들의 감상이나 비평적 태도를 아예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고전문학의 역사성이 학생들의 문학적 이해와 감상, 나아가 문화적 성장에 의미 있는 요소로서 체험되기는커녕, 오로지 메마른 고증학과 지식주의만이 교실을 압도적으로 지배할 뿐이다. 고전이 현재와의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태, 이 속에는 소위 전통단절론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 자체가 분비하고 있는 문제 또한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고전이 선언적으로는 늘 중요한 의의를 부여받고 있으면서 실질상으로는 중심부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이 상태는 고전을 진정한 ‘역사적 원근법’⁵¹⁾(김홍규, 1992)으로 다루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물론 고전을 그 당대의 문학적 코드 속에서 이해하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재의 관점에서 수용하길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재적 관점과 당대적 관점 간에 존재 가능하고 실로 존재하고 있는 질문들은 사라진 채, 오로지 과거

50) 이삼형 외 7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pp. 107-108.

51)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정의는 E. H. 카의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카는 ‘과거에 대한 사실’ 그 자체가 ‘역사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역사적 사실들이란 역사가가 현재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과거에 대한 사실들’ 가운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선택하여 일정한 질서로 배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와 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의미체계를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 과거인들이 공유했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는 무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 박물학적 유산으로만 전수되고 수용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고전과 현대는 단절되며, 전통의 계승은 선언과 당위, 그리고 강제의 형태로만 남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위에 제시된 국어 교육에서의 고전텍스트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감상이나 비평적 태도를 아예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전텍스트가 현재와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박물학적 유산으로만 전수·수용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의 부분에 있어 고전텍스트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고 새로운 제시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본고가 제 3 장에서 조사하여 제시한 <표 3-1>과 <표 3-2>의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의 결과보다 더 낮은 수치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가 앞으로 개정판 한국어 주교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국어교육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가 한정된 지면이라는 이유로 고전텍스트의 경우 단순한 스토리라인만 보여주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적인 내용에 단순한 결말 구조를 보이므로 외국인 성인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할 수 있다. 대학기관이나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대부분은 성인 학습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고전텍스트 제시 방식이 어린이 전래동화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관련 동영상이나 특히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이 대부분임) 또한 고전텍스트를 한번 읽고 지식적으로 학습하는 간단한 내용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텍스트의 현대적 재생산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점 한국어 주교재 안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는 낮아지는 것을 '<표 3-4>개정 후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에서 일부 볼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주교재 속의 고전텍스트를 활용함에 있어 고전텍스트가 과거의 박물학적 유산으로만 전수되고 수용되지 않도록 현대 문화어휘와의 접목된 활동을 통해 고전텍스트가 현대적 변용이 가능한 좋은 학습 자료라는 것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어학과 문법 다음으로 현대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욕구를 아래의 ‘<표 3-5>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⁵²⁾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연세대 어학당의 중국, 일본인 학습자를 통해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에 나타난 내용들이다. 이것을 보면 양국의 학습자 모두 어휘와 문법보다 관용표현을 가장 배우고 싶다고 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인과의 대화상황에서 어휘와 문법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공부해도 관용 표현을 모르면 의미 해석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현대문화와 한국사회(정치와 경제)에 대한 요구가 동일한 3, 4위로 나타났음도 본고가 주목하는 요소이다. 한국의 역사, 전통예술, 전통예술, 요리법 등 어휘와 문법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요구로 대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양 학습자에 비해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가 요구해서 가르치고 싶어도 어학 위주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 할애할 수 없었던 한국 현대문화가 고전텍스트와

52) 강승혜(2003),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일본 학습자 집단과 중국 학습자 집단의 비교, 『한국어교육』 제14권 3호(2003.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9에서 설문 대상자는 주로 20~30대의 연세대 어학당 학습자로 일본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중국인의 경우 ‘대학(원) 진학’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기관별로 4급 이상의 학습자의 분포도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표 3-5>한국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

구분	관용 표현	어휘와 문법	한국 현대 문화	한국 사회 (정치 와 경제)	한국 역사	한국 전통 예술	한국 전통 예술	한국 요리법
일본 학습자	1188	1132	771	712	696	599	441	449
순위	1	2	3	4	5	6	8	7
중국 학습자	456	398	360	307	255	275	204	139
순위	1	2	3	4	6	5	7	8

만나 언어·문화 통합교육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전텍스트를 그 당대의 문화적 코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재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문화를 대변할 현대 문화어휘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전텍스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면서 한국의 문화를 대변할 현대 문화어휘를 고전텍스트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교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재 개발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교재를 재구성하여 고전텍스트를 언어·문화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모든 고전텍스트를 전부 다룰 수 없기에 본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선정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현대문화와 접목하기 쉬운 두 가지 고전텍스트를 통해 한국 현대문화와 접목을 시도하려고 한다. 『홍부와 놀부』처럼 대학기관별 주교재 속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작품과 함께 저빈도 고전텍스트도 선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조사대상 한국어 주교재에서는 저빈도 고전텍스트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조사대상 9개 대학의 주교재에서 1회만 출현한 고전텍스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7%에 해당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표3-2>의 고전텍스트별 교재 수록 빈도’에서 채택 빈도수도 6회⁵³⁾로 높았고 ‘<표3-3>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텍스트 현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홍부와 놀부』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봉건사회와 달라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변화된 의식과 가치관을 확인히 보여 줄 수 있는 소재라는 점도 주된 선정 사유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진 고전텍스트 중에 현대적인 재생산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본고가 제시할 한국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될 경우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되는 대표적인 고전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저빈도 고전텍스트에서는 『한석봉과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한국 현대문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에 대한 과거

53) 서울대 4급-1회, 서강대 5급-1회, 신라대 4급-2회; 5급-1회, 이화여대 4급-1회씩 수록되어 있다.

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 줄 소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에도 언어·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은 고전텍스트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 대상 교재로는 이 두 가지 고전텍스트를 다싣고 있는 교재가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IV』이므로, 이 교재 속에 수록된 고전텍스트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홍부와 놀부

본고가 제시할 현대 문화어휘와 연결될 고빈도 고전텍스트로 선정된 『홍부와 놀부』⁵⁴⁾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IV』에 실려 있다. 이화여대에서 출판하여 자체 어학당에서 사용 중인 교재로 성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책이다. 그 구성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루 익힐 수 있게 고안된 통합교재이다. 무엇보다 과제 중심(task-based)의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⁵⁵⁾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4급 수준은 일상생활에 대한 회화뿐만 아니라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전통 문화 등을 이해하고 고급의 전단계로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긴 단락의 의사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⁵⁷⁾

54) 본고에서는 과거의 “홍부전”과 현대의 “놀부전”사이의 “**홍부와 놀부**”로 통칭하겠다.

55) 『말이 트이는 한국어IV』의 전체적인 구성과 고전텍스트가 제시된 ‘이야기 주머니’의 기능을 이미혜(2006)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10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는 ‘첫 장→과제→도움 표현→어휘→대화→발음→재미있는 한국어→이야기 주머니→토론→읽기→쓰기→심화 문법→듣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고전텍스트가 수록된 ‘이야기 주머니’와 이와 연계된 ‘토론’ 활동이 있다. 4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이 첨부된 현대어로 재구성 되어진 고전텍스트를 이해하고 ‘토론’에서 제시된 토론 표현을 익힌다. 고전텍스트의 좌측 상단에는 내용 이해를 돋는 그림으로 핵심을 담아낸 미니삽화를 한 컷씩 집어넣었다. ‘이야기 주머니’에 제시된 고전텍스트에 대해 ‘토론’에서 3문항 정도 제시되는 질문에 대한 말하기 또는 쓰기를 하게 된다. ‘읽기’에서는 서술의 글, 인과의 글, 연대기적 기술의 글 등등 다양한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를 돋는 물음 3~4가지가 있다. ‘쓰기’에는 쓰기 활동을 돋는 문항 2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쓰기’의 1번 문항은 ‘읽기’에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과 유사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2번 문항은 ‘이야기 주머니’에서 제시된 고전텍스트에 관한 쓰기가 제시된다. ‘이야기 주머니’란의 고전텍스트를 읽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인의 사고방식, 현대 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56)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문 참조

57) 안영수(2008), 『한국어 교재 연구』, 도서출판 하우, p. 213

다음은 ‘홍부와 놀부’가 수록된 본문과 활동부분의 실제 교재 속의 모습이다.

1) 이화여대 4급

여러분은 ‘놀부 심보’라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놀부’ 또는 ‘놀부 심보’라고 할까요? 이 말은 옛날 이야기 ‘홍부와 놀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홍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인 홍부는 마음씨가 착해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형 놀부는 심술이 사나워 동네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또 남의 집 굴뚝을 짚으로 들어막거나 아이들의 땅기머리를 묶는 등 그 심보가 고약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왔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심보가 더 고약해진 놀부는 부모님이 주신 유산도 혼자서 독차지하고, 동생 홍부 가족을 엄동설한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렵고 기난하게 살던 홍부 가족에게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홍부는 자신의 집에 둥지를 튼 제비가 다리를 다치자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다음 해 봄 제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씨를 물어 왔습니다. 박이 노랗게 익자 홍부 가족들은 박을 텁으로 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 속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 부자가 된 홍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도 홍부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물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욕심 사납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을 일컬어 ‘놀부’라고 하고, 그런 고약한 마음씨를 ‘놀부 심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놀부라는 인물은 착하고 선량하여 법 없이도 살 사람인 반면에 놀부라는 인물은 홍부와는 다르게 마음씨가 고약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헤방놓고 심술을 부립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물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욕심 사납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을 일컬어 ‘놀부’라고 하고, 그런 고약한 마음씨를 ‘놀부 심보’라고 합니다.

토론

1.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홍부와 놀부의 성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름	인물의 성격
홍부	· 마음씨가 착하다 · 성격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다
놀부	

2.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각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부와 놀부’라는 이야기 속의 시대에서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름	이야기 속에서의 평가	현대적 시각에서의 평가
홍부	· 형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한다.	· 원가를 자기 스스로 해보려는 의욕이 없다.
놀부		

3. 여러분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홍부와 놀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현대적 평가에 따라 ‘홍부와 놀부’를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십시오.

♣ 토론을 위한 표현 - 상대방 의견에 반대, 반박할 때

-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 그런 주장을 하다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 의견은 여러모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홍부와 놀부』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의 3과에 수록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야기 주머니’의 구성은 헤드라인으로 ‘놀부 심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 주머니’ 제목을 『홍부와 놀부』나 『홍부전』이라고 하지 않고, ‘놀부 심보’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놀부 심보’라는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 『홍부와 놀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상단에는 내용 이해를 돋는 미니 삽화가 한 컷 그려져 있다. 이야기 전개는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단락은 도입부로 ‘놀부 심보’와 관련된 고전텍스트가 『홍부와 놀부』라는 것을 짧게 소개하고 있다. 가운데 단락은 『홍부와 놀부』 이야기가 현대어로 재구성되어 있다. 그 안에는 3과에서 배울 문법 ‘-기(가) 일쑤이다’가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로 ‘-어/아 오다’가 ‘물어 왔습니다’, ‘받아 왔습니다’ 등으로 고전텍스트 속에 녹아 있다. 마지막 단락에 ‘놀부’와 ‘놀부 심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실려 있다.

다음은 ‘이야기 주머니’와 연계된 활동으로 ‘토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홍부와 놀부』와 관련된 3가지의 질문 문항이 제시되고, 하단에 3과에서 배울 토론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등등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 반박할 때의 토론을 위한 표현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1번과 2번 문항은 홍부와 놀부에 대한 말하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팁을 하나씩 적어 놓았다. 1번 문항에서는 제시된 토론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 속에 나타난 홍부와 놀부의 성격을 비교해 본다. 2번 문항에서는 각각 과거와 현대의 시각으로 홍부와 놀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대, 반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표현 소재로 『홍부와 놀부』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문항에서는 현대판 『홍부와 놀부』로 새롭게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고 있다. 1~2번 문항의 토론들로 다소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을 3번 문항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2. 『한석봉과 어머니』

한국문화에 대해 다룬 책들 중에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목차를 통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박영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⁵⁸⁾에 의하면 한국인의 성격적 특징을 28가지로 나열해 놓았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이고 두 번째는 ‘여럿이 어울려서 음식 먹기를 매우 좋아 한다’이다. 세 번째로 다룬 내용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열이 높다’이다.

또한 이선이(2007)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⁵⁹⁾를 보면 총 아홉 개의 Chapter로 한국의 현대문화를 나누었다. 이 중 역사, 정치, 여가와 여행, 가치와 종교, 경제 다음으로 거론되는 일곱 번째 Chapter의 제목은 ‘뜨거운 교육열’이다.

실제로 과거 7~80년대 중동 븐을 타고 먹고 사는 문제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중동근로자를 자청했다. 의식주 문제가 가족의 이별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현대에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칭, 타칭 기러기아빠⁶⁰⁾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9개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 중에서 분석 대상 교재 속에서만 1회 출현하는 고전텍스트인 『한석봉과 어머니』를 출현 횟수는 미미한 고전텍스트였으나 한국의 현대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고전텍스트이므로 이를 선정해 분석해 보려 한다.

『한석봉과 어머니』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의 8과에 수록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야기 주머니’의 구성은 헤드라인으로 ‘한석봉과 어머니’가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 주머니’ 제목을 『한석봉』이라고 하지 않고, 『한석봉과 어머니』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전기가 아니라 일화를 소

58)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p. 57

59)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p. 145

60) 기러기 아빠외에 독수리 아빠(비행기 값이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하는 아빠), 펭귄 아빠(비행기 값이 없어서 자주 왕래할 수 없는 아빠) 등 다양한 변종어가 양산되고 있다.

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상단에는 내용 이해를 돋는 미니 삽화가 한 컷 그려져 있다. 이야기 전개는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단락은 도입부로 『한석봉과 어머니』의 일화를 끌어내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가운데 단락은 『한석봉과 어머니』 이야기가 현대어로 재구성되어 있다. 그 안에는 8 과에서 배울 문법 ‘은/는커녕’이 교재에 ‘반가워하기는커녕’으로 ‘(이)야말로’ 가 ‘어머니야말로’ 등으로 본문 속에 녹아 있다. 마지막 단락에 본문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실려 있다.

다음은 ‘이야기 주머니’와 연계된 활동으로 ‘토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석봉과 어머니』 와 관련된 4가지의 질문 문항이 제시되고, 하단에 8과에서 배울 토론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요컨대……’ 등등 부연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토론을 위한 표현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1번과 2번 문항은 흥부와 놀부에 대한 말하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팁이 하나씩 적혀져 있다. 1번 문항에서는 모국의 유사 텍스트를 말하게 하고 있다. 학습자의 모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2~3번 문항에서는 현대의 시각으로 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논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방 의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때에 필요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번 문항에서는 한국의 교육과 모국의 교육을 비교하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한석봉과 어머니』의 본문과 활동부분의 실제 교재 속의 모습이다.

이야기 주머니

한석봉과 어머니



문이었던 것이지요.

한석봉(1543-1605)은 양반이던 가문이 몰락하여 어렸을 때 마음대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석봉의 재주를 간파한 어머니는 석봉에게 글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절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의 학비를 대기 위하여 열심히 떡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학비를 내기 위해 절을 찾아가는 했지만 매번 갈 때마다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보고 싶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석봉은 혼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한밤중에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지만 어머니는 반가워하는 커녕 오히려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불을 끄고 어머니가 떡을 써는 동안 석봉에게는 글씨를 쓰라는 것입니다. 석봉은 자기의 글솜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두운 속에서도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는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똑같은 모양으로 반듯하게 썰어져 있었지만 석봉의 글은 빠뚤빼뚤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을 크게 꾸짖고 어둡고 추운 길로 내보냈습니다. 석봉은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석봉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고 과거에 급제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에까지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최근 들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왜곡된 형태로 보여 주는 몇몇 어머니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아들을 반가워하기보다는 현명한 방법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한 석봉의 어머니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 준 한석봉의 어머니는 오늘날에도 많은 어머니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석봉은 이제 다 아셨지만 한석봉의 사치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있으며, 사람의 말이 되어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데리다 주고 있다. 아래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기대가 된다.

토론

1. 여러분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역사 속에는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자식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2. 한석봉의 어머니 역할이 현대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역할의 비교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4. 한국의 교육과 여러분 나라의 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토론을 위한 표현 - 부연 설명을 할 때

- 다시 정리해 보면
- 그러니까 요컨대
-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면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자면
- 두서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제 4 장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의 실제

앞의 제 1장의 선행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김수현(2004)⁶¹⁾에서 다룬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에 대한 논지와 본고의 의견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에 김수현(2004)⁶²⁾급별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내용을 인용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아래 내용에 대해 부연하자면 초급은 1~2급을, 중급은 3~4급을, 고급은 5~6급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다.)

<표 4-1> 급별 문화 교육의 목표

등급	급별 문화 교육의 목표
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의 원리를 이해한다.- 비언어적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을 기른다.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 표현, 속담 등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언어 표현 및 추상적인 글의 의미를 이해한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한국의 사회 제도와 풍습을 안다.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치, 경제, 종교 등 한국의 심층 문화를 이해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현재 생활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61) 김수현(2004), 전계논문

62) 상계논문

위의 초·중·고급별 문화 교육의 목표 중에서 중·고급의 예에서 기술된 내용을 보면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언어 표현 및 추상적인 글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학 작품 이란 고전작품과 현대작품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고전텍스트는 기본 줄거리의 변용이 없이 난이도를 조절이 가능하다고 2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고전텍스트에 관용 표현과 관련 속담 등을싣고,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문화적 배경을 교사와 함께 수업시간에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전텍스트에 실린 내용을 통해 예를 들어 권선징악이나 효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사회 제도와 풍습에 대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급 이상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표에 대해 횡인교(2011:241)⁶³⁾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전텍스트를 통해 과거 한국사회의 여러 방면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한국 현대 문화어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알아가는 교육이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의 3장의 한국어 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수록현황에서도 1~6급 중 4급에서 가장 많은 고전텍스트가 수록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언어적으로 문장단위의 글을 학습하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표 3-1>의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별 주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에서 1~6급 중에서 20%로 가장 많은 고전텍스트 수록 빈도를 나타낸 4

63) 횡인교(2011),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 양상 연구-고급 학습자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어교육기관 정규과정의 목표의 일부를 인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		정 규 과 경
초 급	1급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이해, 단순한 사회활동에 대한 적응력이 있음
	2급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나 충분하지 못함.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이해함.
중 급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 구하고 소개 가능.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 이해
고 급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 가능, 일부 방언과 향토적 특성 이해.
	6급	한국에 대해 설명 가능. 준비하여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 가능

급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의 수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현대문화와 접목된 고전텍스트 교육 방안을 실제 고전텍스트 작품을 통해 제시하려 한다. 앞서 3장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분석한 『홍부와 놀부』, 『한석봉과 어머니』가 한국의 어떤 현대 문화어휘와 접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고전텍스트와 연결될 현대 문화어휘

문화어휘를 크게 분류해 보면 직접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직접 문화어휘’와 맥락에 따라 문화적 배경과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간접 문화어휘’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문화어휘’의 경우 한국의 문화와 1:1로 대치가 되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예로는 김치, 비빔밥, 한복, 한글, 하회탈, 고려청자 등이 있다. ‘간접 문화어휘’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맥락 이해가 없이는 해석이 힘든 경우로 그 예로는 횟병, 재벌, 책걸이, 한, 치맛바람, 햅볕정책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문화어휘는 4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써 과거 전통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오지만 현대에 와서 변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현대 문화어휘’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준이 있는 외국인 학습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현대 문화어휘’ 중에서도 ‘간접 문화어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홍부와 놀부』 - ‘놀부 보쌈’

1992년에 시작된 한국 대표 음식 프랜차이즈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은 아우 홍부를 괴롭히는 악으로 상징되던 놀부의 이미지가 현대에 와서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재해석되어⁶⁴⁾ 외식업계는 물론 현대 한국인에게도 홍부를 능가하는 긍정적인 현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

64) 신성원(2007),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다면 먼저 이 음식의 유래와 어떠한 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부대찌개는 과거 한국전쟁이후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육류와 그 부산물들을 끓여 먹던 가난한 시대의 음식이 현대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 발전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쌈의 경우 한국의 전통 김치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재료와 정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과거에는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서나 해먹던 음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풍요로워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돼지고기나 기타 관련 가공식품은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고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즐기는 보쌈김치 또한 그러하다. 또 이와 관련되어 생겨난 프랜차이즈 음식점 역시도 그 수를 해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놀부 보쌈’이라는 음식 프랜차이즈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친숙한 브랜드와 음식이 되었으며 놀부의 이미지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⁶⁵⁾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무쌍한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에서 놀부는 실속 있는 현대적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흥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발맞추지 못한 뒤떨어진 인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흥부로 대변되는 권선징악적인 주제와 교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용할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흥부와 놀부』와 관련지을 현대 문화어휘로 ‘놀부 보쌈’을 선정하여 이를 통한 실제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석봉과 어머니』 - ‘기러기 아빠’

해외로 출국한 조기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1,350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27,349명으로 약 20배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 자료의 조기유학생 수는 부모와 과연동행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학생을 제외한 대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 이들을 ‘기러기 아빠’⁶⁶⁾라고 부르고 있다.⁶⁷⁾ 이는 한국에서 형성된 개념이

65) “흥부”로 시작하는 음식 프랜차이즈도 있으나 “놀부” 만큼의 유명세와 긍정적 이미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

한국사회에서 분거가족은 1960년대 초기에는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교육제도로부터,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으로의 노동력 해외수출로부터 발생되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분거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는 자녀 교육을 위한 주말부부, 월말부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박숙자, 1991)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글로벌화, 세계화 추세로 영어교육을 위해 가족을 해외유학 보내고 분거하는 새로운 장기분거가족형태⁶⁸⁾로 ‘기러기 아빠’가 출현하였다. 이에 부모의 3분의 1가량이 자녀의 해외유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Kim et al. 2005; Lee & Koo 2006)정도로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한 특히 영어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의 확산이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⁶⁹⁾ 이러한 현상은 서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테다가 최근 한국과 같은 동양권인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적인 특성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중국보다 인구 수 대비 다량 발생한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극성스러운 사회로 비춰진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희생정신과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현상과 맞물린 교육환경에서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꾸준히 기러기 아빠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 아빠’ 양산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적인 상류층과 중산층, 하류층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상류층의 경우 과거나 현재에서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유학을 보내 세상 견문을 넓히는 것을 당연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경제력이 없는 하류층을 제외하고 중산

66) 이론적 정의 : 기러기 아빠란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놓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자이다(국어사전 훈민정음, 2004)

67) 차은경(2012), 기러기 아빠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 이화여대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논문

68)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2010),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4호(2010년 겨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107-133

69) 염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권 2호, 한국가족치료학회, pp. 25-43에 따르면 직장에 따라서는 10% 이상이 기러기 아빠인 곳도 있다고 한다.

총⁷⁰⁾까지 자녀들의 해외유학에 합류하고 있는 점이 큰 사회적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잣대이며, 가족생활 자체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정서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부공동체’⁷¹⁾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식에서도 서양의 자녀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대안 내지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반해, 한국의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해서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해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학업성취를 통한 입신양명이 얼마나 강조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집단주의 문화전통에 서 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개인의 존재와 삶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박영신 등, 2003 참고)⁷²⁾

다음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기러기 가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최양숙(2005)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으로 부(副)의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사회적 요인, 즉 부모 자녀 동일체감 및 동조현상과 더불어, 실제로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의 필요성 때문이다.

셋째, 인생의 성공을 길게 보지 못하고 대학입시 등과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과악하기 때문이다.

넷째, 시기심(envy) 때문이다.

위와 같이 높아진 경제력과 함께 심리·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입시를 성공을 향한 지름길로 보는 시각과 함께 타인에 대한

7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993)에 의하면 중산층의 교육열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강박관념적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좋은 대학 입학이 성공적인 인생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활은 자녀교육 위주로 짜여지며 교육비 지출 이외의 생활은 검소하다. 또 어머니들은 남편 수발보다도 자녀의 학습지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71) 이득재(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72) 최양숙(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 아빠』, 한국학술정보(주), pp. 37-38에서 발췌함.

시기심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러기 아빠’와 같은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만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실제적 논리가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교육의 힘만으로도 입신양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가족해체의 현상을 옳다, 그르다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국 현대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기러기 아빠”라는 한국 현대문화어휘를 가지고 한국인 누구라도 알고 있는 고전텍스트 『한석봉과 어머니』⁷³⁾와 연결하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73) ‘100가지 민족문화상징사전’에서 사회 및 생활상징 34개 중 교육은 2개를 차지했다. 그 2개 안에 서당과 함께 ‘한석봉과 어머니’가 있다.

제 2 절 현대 문화어휘를 활용한 수업 모형 제시

다음은 논의 대상인 두 고전텍스트를 대표하는 현대 문화어휘를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1. ‘놀부 보쌈’을 통한 변화된 경제관 이해

앞선 글에서 ‘놀부 보쌈’을 통해 ‘놀부’에 대한 과거와 다른 현대적인 재해석을 살펴보았다. 아우 흥부를 괴롭히는 악으로 상정되던 놀부가 현대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재해석되어 일반 한국인에게도 흥부보다 현대에 잘 적응한 인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외식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놀부 보쌈’의 경우 맛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놀부의 이미지까지 바꾸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흥부와 놀부』 -‘놀부보쌈’이라는 현대 문화어휘를 통한 수업 모형이다.

작품제목	「흥부와 놀부」(이대 4급)		
학습주제	「흥부와 놀부」와 관련 상호 “놀부보쌈”의 접목을 통해 한국의 현대 경제관념에 대해 알아보기.	시간	30분
학습목표	“놀부 보쌈”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제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		
학습내용	교 수 내 용	학생	자료
도 입 (3분)	-놀부 보쌈, 놀부 부대찌개를 아는지? 먹어본 적이 있는지?	말하기	놀부 보쌈 배달 팜플렛
전 개 (7분)	-왜 놀부라고 지었을까? -상호가 적힌 간판을 보고 왜 흥부가 아닌지 이상하게 생각한 적 있는지?	말하기	놀부 보쌈 광고, 간판사

			진
활동 (20분)	-모국에도 이와 비슷한 고전이 있는지? -모국에도 현대에 바뀐 경제관념 등이 있는지? -자녀와 경제와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	
과제	모국의 경제관과 한국의 경제관을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경제관)을 경제 신문처럼 글과 그림 등으로 집에서 만들어 오기(학습자 모국과 한국의 모든 자료 첨부해서 사용 가능)		

외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식사하러 간다든지 또는 길에서 볼 수 있는 ‘놀부 보쌈’ 간판과 팜플렛을 수업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생활의 실제적인 면을 부각시켜 학업의 흥미도와 성취 욕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 위함이다.

2. ‘기러기 아빠’를 통한 한국의 교육관 이해

인구대비 수 미국에 유학 보내는 비율이 중국보다 앞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도 높음을 반증하는 자료일 것이다. 조기 유학 열풍에 중산층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처음엔 일부에서 나타나던 ‘기러기 아빠’가 이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에 본고는 『한석봉과 어머니』를 통한 고전텍스트 수업에서 ‘기러기 아빠’라는 현대 문화어휘를 접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한석봉과 어머니』 - ‘기러기 아빠’라는 현대 문화어휘를 통한 수업 모형이다.

작품제목	「한석봉과 어머니」(이대 4급)			
학습주제	「한석봉과 어머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시간	50분	
학습	「한석봉과 어머니」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			

목 표	할 수 있다.		
학 습 내 용	교 수 내 용	학 생	자료
도 입 (5분)	KT 올레 광고 시리즈 중 「한석봉과 어머니」 패러디 장면을 보여주며 이 광고와 관련된 고전텍스트를 배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환기함.	듣 기	K T 올 레 광고
전 개 (15분)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한석봉과 어머니」를 한 문장씩 연결하여 읽게 함. 빔 프로젝트를 통해 김홍도의 서당그림을 보여 주면서 조선시대의 교육의 모습을 설명함. 문법 : 은/는 커녕, (이)야말로를 교재속의 예로 설명함. 어휘나 표현 : 학비를 대다. 꾹 참다. 한밤중. 등을 물어본 후 그 단어나 표현의 뜻을 아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이 설명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줌.	읽 기 듣 기	김 홍 도 의 서 당 그림
활 동 (30분)	토론을 위한 표현-부연 설명을 할 때의 토론 문항 4 가지를 설명하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역 할만 한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요컨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자면~, 두서가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①모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 말하기 예) 중국-맹모삼천지교, 왕희지 이야기 등 ②한석봉의 어머니 역할이 현대에 바람직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③자식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특성에 대해서 ④모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 유사점과 차이점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면 비슷한 의견인 학생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글로 요약한 것을 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말 하 기	
과 제	기러기 아빠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나누어 주고 읽어 오게 한다. 참고 자료의 경우 수준별 일부 각색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교사가 일부 번안한다.		

KT 올레 광고 시리즈 중 『한석봉과 어머니』를 차용하므로써 학습자의 학습 집중력과 흥미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패러다이므로 학습이후 한국인과 같은 상황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논하는 것은 학습자 개인의 교육관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기러기 아빠’라는 현대 문화어휘를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였다.



제 3 절 ‘현대 문화어휘’ 수업 모형을 통한 고전텍스트 교육의 의의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 중 문화적 의미를 띠는 어휘를 ‘문화어휘’라고 명하고 그 목록들을 조사한 전미순(2011)⁷⁴⁾에 의하면 문화어휘는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특수어휘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어 어휘와는 차별화된 교육 원리가 마련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차별화된 교육원리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와 연결될 현대 문화어휘를 통해 나타내 보았다.

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화 내용이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대다수라고 한 김수현(2004)⁷⁵⁾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 내용의 소개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 교수법이 문화교육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자료일 것이다. 고전텍스트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현대 문화어휘와 연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과거와 현대사회를 함께 가르쳐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도 높이며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시키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고가 선택하여 제시한 ‘현대 문화어휘’ 즉 ‘놀부 보쌈’과 ‘기러기 아빠’는 과거 전통사회에서부터 존재함을 고전텍스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거기에 더해 변화된 현대의 가치관이 접목되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현대에 나타나는 경제와 교육 분야의 문화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현대 문화어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한국어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의 수업 후 활동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고전텍스트 교육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4) 전미순(2011), 전개논문

75) 김수현(2004), 전개논문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화 교육과 함께 언어 교육을 고전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통합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 언어·문화의 통합 교육의 방안으로 한국어 주교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고전텍스트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고전텍스트 교육의 장점을 살펴보았다.

고전텍스트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 교육이 암기 교육으로 흐르고 있어 현대문화와 맞지 않는 과거의 인습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텍스트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문학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문학 자체를 실제적으로 감상, 이해하며 문학에서 표현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고전텍스트 교육에서 언어·문화 통합교육이 효율적이며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방안을 강구해 볼 시점인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3장에서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제작, 출판하여 교육하고 있는 9개 대학의 한국어 주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수록 현황을 조사하고 고전텍스트 목록별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정본을 완결하여 출판한 대학으로는 연세대와 고려 대뿐이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한국어 주교재에서 고전텍스트의 수록이 줄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와 함께 초등 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고전텍스트가 얼마나 수록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어 주교재의 고전텍스트 목록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어 교재 속의 고전텍스트 목록 선정 기준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어 교재의 고전텍스트 중에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으면서 현대문화의 경제관념과 접목이 잘 이루어지는 『홍부와 놀부』를 선정하였다. 또한 『한석봉과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이 고전텍스트는 1회의 출현 빈도수이나 한국의 변화된 현대 교육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제재이므로 현대 문화어휘와 연결하여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으로 알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고가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의 현대 문화어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어휘 중에서도 한복, 하회탈, 호랑이와 같은 직접 문화어휘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한, 횃병, 치맛바람과 같은 간접 문화어휘이면서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현대 문화어휘로 규정하였다.

본고가 선정한 고전텍스트와 접목하여 교육할 현대 문화어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홍부와 놀부』는 ‘놀부보쌈’을 통해 한국의 변화된 경제관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대 교육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고전텍스트인 『한석봉과 어머니』는 ‘기러기 아빠’라는 현대 문화어휘를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변화된 모습도 비교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기존 한국어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텍스트가 현대 문화어휘를 통해 현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제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고전텍스트가 정형화된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콘텐츠라는 것을 밝혀 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고전텍스트들에서 현대 문화어휘들이 발견되고 수업현장에서 사용된다면 한국어 주교재 속의 고전텍스트가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방안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전텍스트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교재 자료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연수부(1991), <한국어1~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_____ 한국어문화연수부(1992), <한국어5~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_____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1>, 교보문고
- _____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9), <재미있는 한국어2>, 교보문고
- _____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3~6>, 교보문고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2005), <한국어 1~2>, 건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 (2008), <한국어 3~4>, 건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 (2009), <한국어 5>, 건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 (2010), <한국어 6>, 건국대학교 출판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4), <한국어 초급 I ~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_____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4), <한국어 중급 I ~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_____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3), <한국어 고급 I ~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1A~1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_____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2A~2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_____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3A~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_____ 한국어교육원(2006), <서강 한국어4A~4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_____ 한국어교육원(2007), <서강 한국어5A~5B>. 서강대학교 국제
문화교육원 출판부
- _____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6A~6B>. 서강대학교 국제
문화교육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1~2>. (주)문진미디어
- _____ 언어교육원(1999), <한국어3~4>. (주)문진미디어
-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어학원(2004), <배우기 쉬운 한국어1~6>,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2006),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1~
6>, 도서출판 박이정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1~2>,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한국어학당(1993), <한국어3>,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한국어학당(1994), <한국어4~6>,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1~2>,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한국어학당(2008), <연세 한국어3~4>, 연세대학교 출판부
- _____ 한국어학당(2009), <연세 한국어5~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 II>.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2000), <말이 트이는 한국어III>.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IV>.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 _____ 언어교육원(2006), <말이 트이는 한국어 V>.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2. 단행본

김성경 편역(2005). 에드워드 스튜어트,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역자의 말(서문)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p. 57

_____ (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역,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夏雨, p. 305

안영수(2008), 『한국어 교재 연구』, 도서출판 하우, p.213

이득재(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이삼형 외 7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p.107-108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p.145

최양숙(2005), 『조기유학, 가족 그리고 기러기 아빠』, 한국학술정보(주)
p. 37~38

한국문학교육학회(2010), 『정전(正典)』, 역락, p.186

Hall, Edward T.,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 Doubleday, 1969.

3. 논문

장승혜(2003),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
『한국어 교육』 제14권3호(2003.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9

장현화(2007),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방안, 『언어와 문화』 제3권 제2호
(2007.0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 85-115

_____ (2008), 한국어 교육학 내용학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어 교육』 19
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1

_____ (2010),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 방향성에 대한 제언 :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국민대학교 어문
학연수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5

- 강혜민(2006),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오현(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 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제12집, pp. 247-274
- 김선미(2004), TV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 문화 학습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김수현(2004),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현황과 방안, 『이화어문논집』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43-59
- _____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익환(2006), 문화적 요소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제32호(2006. 5),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pp. 7-24 재인용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2010), 기리기 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4호(2010년 겨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107-133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박사논문
- 문부자(2004), 설화를 활용한 통합적 수업 방안 -중급 단계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교육 제15권 1호 (2004. 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51-92
- 박희은(2007),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학습 방안 연구 -한, 미간 문화적 간섭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학 석사논문
- 백인자(2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61-83
- 서희정(2005), 도깨비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85-206

- 신성원(2007),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한
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양민정(200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통권25호(2003 여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센터, pp. 269-292
- _____(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35호(2005 겨
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01-126
- _____(2008),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
안 연구 - 한. 중. 일의 창세. 건국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43호(2007 겨울), 한국외국
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47-169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기러기 아빠-, 『한국가
족치료학회』 10권 2호, 한국가족치료학회, pp. 25-43
-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
문
- 이동규(2005), 중 ·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속담관용어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 이미혜(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1호
(2005.05.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85-206
- _____(2006),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토론 수업 방안, 『이중언
어학』 제30호(2006. 02), 이중언어학회, pp. 305-334
- 이숙진(2007),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 학습자 등급에 따른
교재구성을 중심으로 - 강남대 국어국문과 석사논문
- 이양호(2008), 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 문학 교육 방향 고찰 -7~10학년 국
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논문

- 이은성(2010),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이화선(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혜진(2011),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전미순(2011),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박사논문
- 정예희(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용 한국문화상징 어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조희정(2007), 고전 정전의 재검토 - 해방 이후 초,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25권, 한국문학교육학회
- 차은정(2012), 기러기 아빠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 이화여대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논문
- 최권진(2006),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권 2호(2006.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37-266
- 홍혜준(2004), 고전문학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 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 529.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집(2003. 1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 287-329
- _____ (2011),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 양상 연구-고급 학습자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 인터넷 자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703231255§i](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703231255§ion_id=02)

on=02 일부 발췌함.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에서 2010년 뉴스를 발췌함.



【부 록】

〈홍부와 놀부〉 과제의 참고 자료

2011년 07월 04일자 서상철 [캐나다 원저대학 교수](#)가 쓴 “한국은 ‘놀부의 나라’…홍부가 기가 막혀!”⁷⁶⁾라는 제목의 경제 논평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인 나보다는 전체로서의 우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청하기도 전에 도와주려 한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 이러한 서로 의지하는 사회 상황으로부터 어쩌면 나태해질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가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이 경제 발전에 좋지 않은 전근대적인 사고로 [묘사](#)하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홍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놀부의 부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부는 대책 없이 아이만 많이 낳아 형인 놀부에 의존하려는 나쁜 습성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현대](#) 한국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 발전이라는 지상 목적에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가치관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부는 [제비](#)를 위해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지만, 놀부는 돈을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러한 홍부의 착한 성품과 함께, [부자](#) 형 놀부에게 의존하는 마음 또한 있다. 이 의존하려는 마음이 공동체가 제공하는 편안함인 것이다. 그래서 그 형이 망해서 홍부에게 의존해야 할 때 홍부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의 중심 테마

7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703231255§ion=02 일부 발췌함.

는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이기심이 아닌 서로를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과거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가치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이 가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으며, 이미 너무 많이 빨리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이성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이 우월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무 빨리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것을 버리다보니, 우리가 가진 많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폐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것까지 부정하다보니, 새로운 가치가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조차 새기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 그 무엇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석봉과 어머니〉 과제의 참고 자료

中 선전시, '기러기 아빠' 요직서 배제⁷⁷⁾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선전시 정부가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으로 이주한 공직자를 요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광주일보(廣州日報) 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전시가 최근 발표한 '당정 정(正)급 간부에 대한 감독 강화 규정'을 통해 공무원 가족의 해외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선전시는 이 규정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국적이나 영구 거주권을 취득했거나 뚜렷 한 이유 없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 공직자는 조직의 주요 성원이 될 수 없다며 정급 간부에서 배제도록 했다.

선전시는 또 간부들의 전횡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직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당정의 정급 간부가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했다. 정급 간부는 또 인사나 재무, 심사, 공권력 집행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77)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에서 2010년 뉴스를 발췌함.

ABSTRACT

“The method for integrated educ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using classical text”

- The usage of cultural vocabulary-

Bae, Sun Hy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have researched how the classic texts that are includ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effective, and we have chosen “Heungbu and Nolbu”, “Han Seok Bong and His mother” as examples. Then, I used each text and proposed some modern cultural vocabulary, and I used this as a model for the module for Korean educat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aim is to prove that more and more classic texts can be utilized in Korean classes by discovering cultural vocabulary. To discover the necessity of integrated education of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through the classic texts, I have provided 3 points that can prove that these texts are effective.

① It is possible to translate the texts into variety of levels without having to change the content. ② One can teach not only Korean language, but also Korean history and its culture ③ One can understand the atmosphere when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Korean person, and also understand the everyday contents in various medias that uses classic texts as their background.

Moreover, in chapter 3, after researching the classic texts included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we confirmed that the level of the texts were level 4 out of 6 levels. The most popular text was “The Myth of Dangoon”, and the 2nd was “Heungbu and Nolbu”. Based on this, I have chosen “Heungbu and Nolbu” as an example of a well-used text, and also I have chosen “Han Seok Bong and his mother” which was only chosen once in the textbook from Yehwa Woman University, but has a potential to develop its usage.

In chapter 4, from “Heungbu and Nolbu”, I have chosen “Nolbu Bossam” as a modern cultural vocabulary that will help people to understand the changing economic view of Korea, and discussed its meaning. Also, from “Han Seok Bong and his mother”, I have chosen “Lonely Father”(A father who is left alone while others are living overseas/other cities mainly because of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o discover the educational view of Korea and discussed its meaning. By using these texts that are included in Korean textbooks, we tried to disc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ic tex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we need to include Korean cultural terms such as “Nolbu Bossam” or “Lonely Fath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result, if a foreign student learn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effectively, then more and more classic texts would be able to be included in Korean texts as a method of teaching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 cultural terms that are included in this paper must not be taken as a simple knowledge, but rather they need to utilize these vocabularies in their everyday lives. Through this, I believe that this will help people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will be able to hav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 Key Terms 】 Cultural vocabulary, Modern cultural vocabulary, Classic texts, Integrated educ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Heungbu and Nolbu, Nolbu Bossam, Han Seok Bong and his mother, Lonely Father, Korean language education



日文抄錄

古典テキストを活用した言語・文化統合教育方案 —現代文化語彙と切り継ぎして—

裴順香（ペ シンヒヤン）

韓國語教育語専門

韓國語文學科

大學院、漢城大學校

本稿は現在韓國語教育で使われる主な教材に収録された古典テキストが言語・文化統合教育の題材で使われるのに有用なテキストであることを調べ、これを實現するため『홍부와 늘부』、『한석봉과 어머니』を選定した。そして様々の古典テキストと係わる現代文化語彙を提案したし、これを既存韓國語教育現場で實現できることを授業模型で提示した。このような研究を通じてもっと多い古典テキストから現代文化語彙が發掘されて授業現場に活用でき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

このような古典テキストを活用した言語・文化統合教育の必要性のために二章で古典テキストの効用性をみつて調べた。

①古典テキスト自体の基本あらましの変容がなしに多様な難易度で翻譯が可能だ。②韓國語の學習とともに韓國の歴史と多様な文化についての教育が行える。③韓國人との對話状況と多様なメディア媒体で古典テキストを土台に使われる現代コンテンツ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た、三章では既存韓國語教材の古典テキスト収録現況を調査した結果1~6級の中 4級に最も多く分布されていた。古典テキストのリスト別の現況

で1位は『檀君神話』が、次には『홍부와 놀부』が二位をしめした。これを土台で既存韓國語教材でよく活用している例で『홍부와 놀부』を、梨花女子大の教材にだけ1回収録されて頻度は低いが發展可能性がある題材で『한석봉과 어머니』を選定した。

四章では『홍부와 놀부』とともに韓國の変化された經濟觀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現代文化語彙で'놀부ボッサム'を選定してその意味を調べた。そして『한석봉과 어머니』とともに現代韓國の教育觀が分かるような現代文化語彙で'기러기 아빠(雁パパ)'を提示してその意味を把握した。これを通じて既存韓國語の主な教材で該当の古典テキスト授業の時に使える模型を通じて古典テキスト教育の實效性を調べてみる。

このようにこれから'놀부ボッサム' '기러기 아빠(雁パパ)'などのようないくつかの現代文化語彙が發掘されてこれを授業現場で適用する必要がある。その結果、外國人學習者に言語・文化的な效果が現われたら古典テキストが韓國語教材に言語・文化統合教育の方案にもっと多く收録されることが可能である。

本稿で提示した現代文化語彙は韓國の古典テキストが外國人學習者に整形化された知識で受け入れられるのではなく實生活と多様に切り継ぎすることができる古典テキストで残るようにできるでしょう。これを通じて韓國文化に対する理解の領域を確張して円滑な意思疎通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の意義ある。

【主題語】文化語彙、現代文化語彙、古典テキスト、言語・文化統合教育、
홍부와 놀부、놀부ボッサム、한석봉과 어머니(ハンソックボングとお母さん)、기러기 아빠(雁パパ)、韓國語教育

中文摘要

應用古典文學要素的語言·文化綜合教育方案 -以現代文化詞彙中心-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業

裴 順 香

本文選定了《興夫傳》，《韓石峰与母親》兩部作品，并以此為基礎研究了現在韓國語教育主教材中收錄的古典文學元素在語言文化綜合教育過程中的有用性，列舉出了與各古典文學作品相應的現代詞匯。并提出了現有的韓國語教育環境下可以被應用的課程模式。通過本研究，致力於發掘出更多古典文學作品中的現代詞匯并將其應用於韓國語教育之中。

本文的第二章闡述了應用古典文學元素的語言文化綜合教育的必要性，并從以下叁个方面闡述了該方法的效果。

- ①不改變古典文學作品本身的故事情節，可以根據翻譯進行難易度的調節。
- ②在學習韓國語的同時，實現包括韓國歷史在內的形式多樣的文化教育。
- ③在與韓國人的對話情況或形式多樣的媒體中利用古典文學元素來理解現代文化中的內容。

在第叁章中，通過調查現在韓國與教材中的古典文學作品的收錄，結果顯示1-6級中4級教材內古典文學作品分佈最為廣泛，古典文學作品按照目錄分類的情況《檀君神話》與《興夫傳》分別位列一二位。在此基礎上，選定了現在韓國語教材中經常使用的《興夫傳》和梨花女子大學教材中僅收錄一次但具有較強發展可能性的《韓石峰与母親》為主要研究對象。

在第四章中，通過對《興夫傳》和現今韓國變化的經濟觀念的理解，闡述了現代詞匯“Nolbu Bossam”的含義。同時，通過對《韓石峰与母親》理解，闡述了體現現代韓國教育觀念的詞匯“기러기 아呻”的含義。通過對現行韓國語教材中古典文學課程在課堂上可以使用的模式研究，闡述了古典文學作品教育的實際效果。

與此同時，在今后有必要發掘更多的如同“늘부모 쌈”“기러기 아呻”等詞匯在教育課程中使用。這樣，學生在語言·文化性效果充分體現的前提下，可以得到更多古典文學作品應用於韓國語教材的語言·文化綜合教育方案。

本論文中揭示的現代文化詞匯不僅僅給學生提供典型的韓國古典文學作品知識，而是通過古典文學接觸更多的實際生活。它的意義在於通過這樣的形式擴大學生對韓國文化的理解使他們更加靈活的與他人溝通。

【關鍵詞】文化詞匯，現代文化詞匯，古典文學，語言文化綜合教育，興夫傳，Nolbu Bossam，韓石峰和母親，大雁父親，韓國語教育

